

제주고 RCY '오늘은 헌혈하는 날!' 캠페인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13일 제주고등학교에서 제주고 RCY(명예단장 고웅철) 단원 및 지도교사 등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은 우리 헌혈하는 날!' 헌혈 독려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독려 캠페인은 매일 13일인 헌혈의 날을 맞이해 교내 단체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제주고 RCY 단원들은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서은혜 청소년적십자단원협의회 부회장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단원들과 함께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많은 친구들이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함께



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1962년 결단된 제주고등학교 RCY는 코로나19 구호품 제작, 적십자 인도주의 체험학교, 소록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인성 함양에 앞장서고 있으며, 분기별로 생명 나눔을 실천해 현재까지 4723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제민신협 지역아동센터와 딸기농가 체험

제민신협은 지난 10일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신협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딸기따기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제민신협 멘토 2명과 아동센터 아이들 29명 등 총 31명이 참여한 이날 체험활동은 농가에서 딸기 수확하기부터 포장하는 과정까지를 경험하고, 시식하는 야외 활동을 통해 딸기가 농가에서 식탁으로 제공되는 과정을 학습하고, 재배하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민신협은 신협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늘푸른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과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총 6회기에 걸쳐 협동을 관련한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함께할 예정이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전국의 신협과 인근지역 아동센터가 연계해 신협 임직원이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가 돼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협동의 가치를 전파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혼디모양문화예술봉사단 의류 기부

혼디모양문화예술봉사단(단장 오임추)은 지난 13일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민하영 노래교실에서 모은 의류 500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혼디모양문화예술봉사단에서 도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여성·다문화 사회복지시설로 전달될 예정이다.

민하영 지도교사는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단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혼디모양문화예술봉사단은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 봉사하고 나눔을 통해 따뜻한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혼디모양문화예술봉사단은 지난 2006년 창단 이래 주기적인 노인시설 공연봉사와 함께 도내 중학교와 사회복지단체에 장학금·후원금을 기탁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돈사돈 서귀포점 착한가게 동참

돈사돈 서귀포점(대표 김남곤)은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가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을 전달 받았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돈사돈 서귀포점은 매일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제주도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남곤 대표는 "돈사돈 서귀포점을 찾아주는 손님들의 따뜻한 정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이웃에 긍정적인 기운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란 중소기업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JDC 상임감사 허진수씨 임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임감사에 허진수(사진)씨가 임명됐다.

JDC는 전임 상임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4일자로 JDC 상임감사에 허진수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허진수 상임감사는 부마민주항쟁 주역으로 참여했다. 이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제9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발굴·조사하고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화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JDC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기는 2023년 4월 13일까지 만 2년이다.

보호종료 아동에 자립지원키트 전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는 지난 13일 한동우·홍윤경 부부와 NH농협은행 광장지점, 고관 후원자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첫 독립을 하는 아동들을 위해 총 6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초록우산 제주본부는 아동들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키트'를 제작해 전달했다. 자립지원키트는 보호자 없이 홀로 정착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응원의 취지로 제작됐으며 소형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됐다.

김희석 본부장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키트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혼자가 아닌 뒤에서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주마라톤클럽 보건소에 한라봉 전달



제주마라톤클럽(회장 조승배)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행된 제주 MBC 마라톤 대회에서 클럽대항 하프코스 다참가상 1위를 수상해 받은 한라봉을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주보건소 선별 진료소에 전달했다.

제주마라톤클럽은 2001년 창단해 현재까지 15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훈련과 대회 출전 과정에서 1m당 1원의 마일리지 기부금을 모아 2009년부터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마라톤 꿈나무를 선발해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동정

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15일 삼도1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에 참석할 예정.

민주평통 제주지역 자문위원 연수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6일 위호텔에서 열리는 '민주평통제주지역회의 2021 제주지역 자문위원 연수'에 참석할 예정.

제주대 교통사고 심리회복지원 상담 운영



제주대 입구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최보영)는 제주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목격자, 구조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 임시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임시 상담부스는 학생회관 1층 로비에 설치됐다. 제주대 학생상담센터는 "하교 시간대에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심리적 위기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상담 대상자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담 요청 상황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아젠토피오레컨벤션 도시락 봉사



(주)아젠토피오레컨벤션 AFC봉사클럽(대표 강영철)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제주시 오라동사회보장협의체(공동 위원장 현호경·양국남)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50가구에 도시락을 전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FC봉사클럽은 오라동사회보장협의체와 월 2회 정기적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룸갤러리 개관기념 이진휴 작가전 | Lee, Jin Hyu. Exhibition details including artworks like 'Picasso / A', 'Me & Lenin's Overlap', and 'From the inside'. Dates: 2021. 04. 07 ~ 05. 02. Location: 이룸갤러리. Contact: 010-9882-8119.